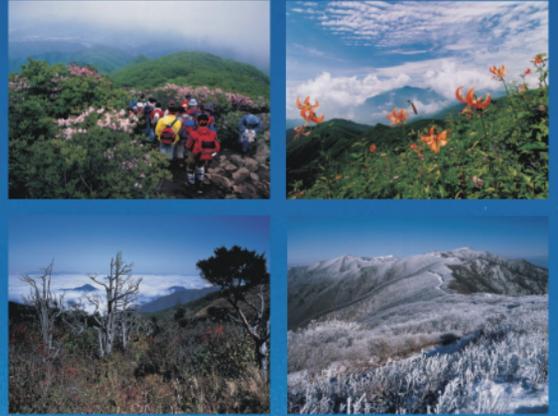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의 · 정 · 소 · 식



목 차

신년사	2
의정 방침	3
2006년 의정활동 성과	4
· 회기별 소식	6
· 건의문 채택	12
· 위원회 소식	14
군정질문 답변 지상중계	19
2006년 회기 운영 실적	25
2007년 의정 운영계획	27



단양군의의회
www.dycc.net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떠나 계시는 출향군민 여러분!
장엄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함께 희망찬 정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새 아침을 맞아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엄 재 창 의장

지난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곳곳하게 우리지역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4만 군민 여러분과 10만 출향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해년 새해에도 안정과 화합 속에 더욱더 발전하는 단양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는 미래의 비전을 담은 화선지에 모든 군민들의 열정을 담아 관광도시 단양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문화관광의 허브도시 단양,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초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관광단양 건설을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단합된 결속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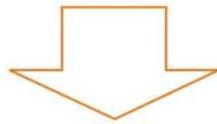
금년도에는 고유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군민 모두가 다함께 해야 되는 고통의 감내가 재삼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역화합을 바탕으로 군민역량과 슬기로운 지혜를 하나로 모아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5대 의회의 의정방침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회』로 정하고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행복한 단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아울러 보다 능률적인 의회,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인인 군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먹고 크는 나무입니다. 이제 열여섯살의 청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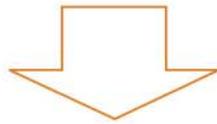
의·정·방·향

-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회



실·천·목·표

1.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
2.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발전적인 의회 실현
3.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로 활력 넘치는 지역 건설
4.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함께하는 의정,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한 신선한 의정활동 수행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5대 의원들은 7월 7일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7명의 의원 중 5명이 초선의원으로



제164회 정례회 김동성 군수 군정질문 답변

구성되었으며, 최초의 여성의원인 탄생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5대 의회가 구성되었다. 의원유급제 등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된 제5대 의회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의 정례회와 5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6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제5대 의회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을 건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회에 걸쳐 2007년도 예산 승인 등 6건의 안건을 승인하여 지역경제를 우선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추구하였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43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민 중심의 정책수행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시설관리로 지방자치 여건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회에 걸쳐 주요사업장 총 239개소에 대하여 24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집행부에 시정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총56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군민의 고통을 함께 하고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능동적인 의정활동

또한 본회의에서는 2회에 걸친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단양지역의 상습적인 수해피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양 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발송하였으며, 10월에는 농축산인과 지역농업 보호를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각 정당에 이송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군 관내 83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164회 정례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지역의 소외계층인 노인에게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지원범

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발의 하는 등 지역주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였다.



영춘면 수해지역 방문

2007년에도 단양군의회의는 의정의 최대 목표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방자치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지수

가 높아지는 살기좋은 단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아울러 보다 능률적인 의회,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158회 임시회

2006. 7. 7일 개최된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제5대 단양군의회의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의장에는 엄재창 의원(가선거구), 부의장에는 오영탁 의원(가선거구)이 선출되었다. 신임 엄재창 전반기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뤄가면서 의회를 한차원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단양을 건설하는데



제158회 임시회(엄재창 의장 개원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오영탁 부의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5대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통해 밝혔다.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개원식에는 김동성 단양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과 집행부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5대 의회 개원을 축하하였다. 이날 개원식에서 신임 엄재창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첫째, 언제나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 둘째, 확실한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로 새로운 의회상 정립, 셋째, 농촌과 재래시장

경기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의회, 넷째,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히며, 모든 군민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단양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는 의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고 군민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개원식에 참석한 김동성 군수는 축사를 통해 제5대 의회의 개원을 축하하며,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며 군정에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서재관 국회의원 등이 보낸 축하 메시지를 낭독하고 개원식을 마쳤다.

제159회 임시회

7월 27일 제15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8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하였다.



제1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위원장 오영탁의원, 간사 신태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운영하였다.

2005년도 단양군에서 집행한 예비비 4건 4,560만 1천원에 대하여는 원안 승인하였다.

다음으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85억 870만 3천원 중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제작경비 지원사업 외 4건 50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그리고 제2차 본회에서는 남한강 상류지역의 상습적인 수해에 따른 재발방지 및 수위 안정을 위한 건의문을 오영탁의원외 5인의 발의로 상정하여 원안 채택하였으며,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 소방한방재청장, 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이송하였다.

제160회 임시회

8월 24일 제16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8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하였다. 임시회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위원장 장영갑의원, 간사 윤수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4일 1일간 운영하였다. 특위에서 위원들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재상정된 연개소문 세트장 건립사업을 포함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요구액 51억 2,393만7천원에 대하여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추경예산을 『수정가결』 하였다.



제160회 임시회 개회식

또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원, 간사 양수자의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특위 기간 중 위원들은 조례의 제·개정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신태의 의원외 1인의 수정안 발의로 수정가결, 2건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다.

제161회 임시회

9월 11일 제16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하였다. 임시회에서는 200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엄재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분이 초선의원인 5대의원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군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와 답변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원들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9월 11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계획된 일정에 의거 14일까지 14개 실과 단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들은 업무에 노고가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도 하였으며 잘못되었다고 판



제161회 임시회 개회식



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제162회 임시회

10월 16일 제16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다.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10월중에 개최하게 되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정례회 기간 중 군정 행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7일간)까지, 조례안(7건)에 대한 심사를 10월 24일(1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10월 25일(1일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를 10월 26일(1일간)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5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신축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차부족,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과 도담삼봉 인공폭포, 양백폭포 주변 야경 등 시설물 설치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 미흡, 신활력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 및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단양노인병원 직영 운영과 홀로 사는 노인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제2차 본회에서는 김영주의원외 5인



제16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발의로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제안설명을 통해 김영주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한 우리 농작물의 가격하락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은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우리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단양군에서는 농축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및 국회, 외교통상부와 각 정당으로 이송하였다.

제163회 임시회

11월 6일에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1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였다.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군에서 2005년 추진한 이월사업 및 2006년 신규 사업 중 1억원 이상인 사업 239개 사업장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 의원)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시멘트유해성과 관련하여 석회석관련 환경 피해조사특위를 구성하였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위에서는 2005년 이월사업과 수해복구사업, 2006년도 신규사업 중 1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 239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면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24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점검을 병행 실시하였다. 현지 점검시에는 특히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 및 시공이 되었는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되어 공사의 진척이 저조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도 58건이나 되었으며,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공무원이 부족하여 하나하나 제대로 감독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공사 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군 집행부에 대책을



제163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수해복구사업 또는 관광개발 사업이 일시에 발주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며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조치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위 점검결과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에 점검결과를 이송, 조치토록 하였다.



제164회 임시회

11월 24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개최식을 갖고 12월 21일까지 28일간의 정례회를 운영하였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단양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11건의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군정질의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제164회 정례회 군정 업무보고

2007년 업무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2007년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군수 공약사항 등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서 업무보고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군정질문은 오영탁 부의장은 상진리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등 15건, 장영갑의원은 시내 주차장 해소 방안등 10건, 김영주의원은 농업예산편성 관련 등 9건, 신태의 의원은

석회석특화지구 도로사업 등 16건, 윤수경 의원은 휴석동산사태 위험지구 대책등 9건, 양수자 의원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계획 등 8건 등 6명의 의원이 총 6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군수 및 부군수, 실과단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체하여 보완,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 전분야에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을 펼쳤다.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제1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 8. 1)에서 단양군의회의원 모두는 그동안 백두대간보호법등으로 재산권 및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단양군민들은 한강수계 남한강 유역의 수위조절을 위한 총주 다목적댐 건립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어 군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신단양 이주시 정부에서 약속한 호반의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인 남한강 수위 확보와 상습적인 수해피해에 따른 재발방지를 요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이송하였다.

존경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님! 그리고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님!



상습수해피해에 따른 건의문 채택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청장님, 사장님께 4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강 상류에 자리 잡은 단양군은 1985년 총주 다목적댐 건설과 더불어 "호반관광 도시"의 꿈을 가지고 군청소재지를 지금의 자리에 옮긴지 만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그간 수도권 용수 공급 등 수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양은 수해상습 지역으로 매년 수해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금번 단양 영춘 지역의 제방붕괴와 주택침수 등 수해 피해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양군이 겪어온 20년의 애환을 살피어 4만 군민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단양을 이루도록 항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백두대간보호법, 국립공원법, 상수도법, 생태자연도 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의 기회마저 저버리게 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의 기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작금의 단양군이 처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단양 4만 군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방안으로 2005년 7월 19일 밝혔던 홍수에 대비한 총주댐의 저수량을 사전에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인식.

둘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단양지역의 재발 방지 대책 시행과 피해액 전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

셋째, 획일적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는 총주댐 운영에 관해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방안을 도입하는 등 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넷째, 수해자 부담원칙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원을 통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여건을 향상

다섯째, 신단양 이주 후 정부가 약속한 "내륙호반관광도시"의 실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총주호 내 단양 소규모댐 건설사업 기본실시 설계는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경기는 물론 관광 단양의 이미지 회복에 정부가 앞장.

韓-美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제1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6. 10. 26)에서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농축산인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및 각 정당에 이송하였다.

정부는 21세기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제4차 협상을 23일부터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이런 요구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북핵 위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한미 FTA를 성사시키고자 졸속적으로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협상과정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비롯한 4대 선결과제를 서

둘러 수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이며, 특히, 농업분야는 초토화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분야에 있어 최소 2조원이상 최대 8조원 이상의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며, 결국 이는 우리 민족의 근간인 농업의 붕괴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농촌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군민의 24%가 농업에 종사하는 단양군도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어, 근민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를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민족의 근간인 농축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 분야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경제 속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미국과의 FTA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양군 새해예산 1,827억 9,700만원으로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살림살이인 예산의 관리, 집행에 있어서 재원의 배분과 소득의 재분배, 지역경제 안정의 기능을 좀더 전문적으로 분석 심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과 2006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제1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의 승인 그리고 2005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예결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2006년 한 해 동안 5번 운영하였다. 의원 모두는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절약과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단양군 전체의 발전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질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주민의 공공이익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단양군 예산을 전년도보다 23.9%가 증액된 1,827억 9,7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회의개최횟수	회의일수	안건처리건수	처리결과	비 고
5	16	7	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 추진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한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의 논리에 맞는 군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총 43건의 조례를 심사하였다.

조례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2006년 한해동안 총 5회를 운영하여 지방화 시대에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자치의식에 기반을 둔 다양하면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로 단양군 장수 노인 수당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교육경비 지급범위를 당초 3%에서 5%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회의개최횟수	회의일수	안건처리건수	처리결과	비 고
5	16	43	4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써, 행정감사특위는



제16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162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중점 추진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고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군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실적으로는 총 318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5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이송 시정 요구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단양군이 21세기 세계속에 우뚝 서는 관광군으로 거듭나고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군 건설을 위하여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의 비전을 담은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비 확보가 미흡하여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게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과 평생학습센터 신축은 부지 내 공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다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부지 내 실질적인 주차 면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공공시설의 일원화로 공공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시설 설치시 장소 선정 및 주차장 확보 등은 사전에 충분하게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것 등을 지적하였으며, 단양노인요양병원과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사업으로서 수범사례로 평가되었다.

회의개최횟수	회의일수	처리결과		비 고
		주 의	시 정	
1	7	21	35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편의 도모



제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는 제 16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2005년도 이월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2006년도 신규 추진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장 239개소에 대한 관련 부서별로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24개소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안사항을 해소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 해결하는 등 주민

편의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점검결과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되어 공사의 진척이 저조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도 58건이나 되었으며,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공무원이 부족하여 하나하나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공사 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군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수해복구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이 일시에 발주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며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조치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위 점검결과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에 점검결과를 이송, 조치토록 하였다.

회의개최횟수	회의일수	처리결과	비 고
1	5	2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로 지방자치여건 강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이나 처분전에 적정성과 효과성을 전문적으로 검토 분석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3차에 걸쳐 3건을 심사하였다.



제164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현지점검

공유재산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재산취득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항,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의 지장 초래여부, 공원·체육시설·어린이 놀이터, 체력 단련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재점 검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유지 대부로 인한 산림훼손 지역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광산 개발로 인한 대기과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환경피해는 물론 식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할 것과, 지난해 공유재산특위현지점검에서 요구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일부 시멘트 회사의 무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64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광업용 대부지에 대한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효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대부기간을 6개월로 조정하여 승인하였다.

회의개최횟수	회의일수	안건처리건수	처리결과	비 고
3	6	3	3	

상진리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소외의식 해소를 위한 방안은?



오 영 탁 의원 | (단양 가, 한나라)

[질 · 의 · 요 · 지]

민선4기 군정목표를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으로 설정하였는데, 상진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소외의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지소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하며, 이외에도 공동 목욕탕 시설 운영, 체육 시설 설치,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또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의 실천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의향은?

- 김동성 군수 답변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를 보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후 법문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전제로 의료취약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보건지소 설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겠음.
- 상진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조속한 시일내 개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상진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해소를 위한 체육시설, 주민편의봉사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에는 저 또한 무척 공감합니다. 현재 군에서 소규모 요양 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향후 체육시설 등 기타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각종 행사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한 견해와 통합 조정할 계획은?



장 영 갑 의원 | (단양 가, 열린)

[질 · 의 · 요 · 지]

각종 축제를 통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단양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 개최되고 있는 행사 중 일부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축제로 변질되는가 하면, 축제의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폐합 할 필요가 있는 행사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통합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통합 조정하실지?

- 김동성 군수 답변 -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지역의 문화관광 진흥과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많은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게 사실이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함. 그러나 지역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나면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임. 실례로, 우리 군도 금년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사후 평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철쭉제 기간 중 20만명이 우리지역을 다녀갔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3억원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반면, 일부 축제는 규모가 작고 타시군의 축제시기와 중복되는 등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축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앞으로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전국, 나아가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과 차별성, 실효성이 부족한 농·특산물 축제 등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폐지하거나 판촉 행사위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농업예산과 관련하여



김 영 주 의원 | (단양 나, 열린)

[질 · 의 · 요 · 지]

군수님께서는 농업에 대하여 공약도 하셨지만 어느 석상이나 모인 자리에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이 군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편성에 있어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김동성 군수 답변 -

- 2007년도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42.8% 증가된 201억원을 편성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2007년도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도농 상생의 복지 농촌 조성, 둘째, 농업축수산업의 소득증대
셋째,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명품화 육성 등의 농업정책 방향으로 추진 하겠음.
-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과 미래 농업 농촌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의 활력을 도모,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을 확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축산업 선진화로 경영안정 도모와 수산 자원 증식으로 쓰가리 명품화를 추진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전략품목 집중 육성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현대화를 통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수출을 확대하고 5대 농산물명품화를 추진하는 등 농업인이 살고 싶은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자 함

시멘트사 환경피해 대책에 관하여?



신 태 의 의원 | (단양 나, 한나라)

[질 · 의 · 요 · 지]

최근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산업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무지막지한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으로 사료되며 도와 우리군의 환경위생과에서도 기업들의 자율적 점검으로 인하여 배출업소 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주민의 건강 및 생명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전국 쓰레기는 물론이거니와 산업폐기물, 정·폐수오니까지 무차별로 반입되고 있어 앞으로 향후 군의 대책은?

- 김동성 군수 답변 -

- 본 사항은 1999년도부터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오염 기준치를 강화하거나 오염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적 개선에 앞서 현행법 범위내에서 폐기물의 반입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과 각종 오염원 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 무엇보다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책적인 사항은 검찰조사 결과와 환경부 대책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이에 앞서 시멘트사에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유도하고 군 자체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추진 대책은?



윤수경 의원 | (단양 나, 한나라)

[질 · 의 · 요 · 지]

여러번의 장마로 인하여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가중되어 재해위험지구로 행정부에서 8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복구한 후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였으나, 2006. 7. 30 수해 이후 급격한 침하로 군도 1개소는 균열되어 한쪽은 상부로 솟아오르고 다른 한쪽은 침하되어 1.2km 구간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곳에 침하가 빨라지면 영춘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는 가곡면과 단양읍의 침수의 가중을 주는 위험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휴석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해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책은?

- 김동성 군수 답변 -

-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는 72년 대홍수 시 침하 및 사면 유실이 발생한 후 점차 피해의 위험이 가중되어 75. 7.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한 후 위험구간 7.55ha에 대하여 사업비 67여억원을 투자하여 산사태방지대책 사업을 완료한 후 2001. 12. 31 재해위험지구를 해제 하였으나,
- 06년 7월 수해 시 사업완료 구간 인근으로 침하 및 붕괴 피해가 발생하여 573백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 중 (설계 및 지질조사용역)에 있음
- 군도 13호선(갈매기~용진) 수해복구 실시설계 및 지질 조사 용역을 '06. 10. 30 착수하여 현재 피해지역 주변 표본지질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추진 공정은 지반 보링 및 탄성파 검사 등의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측정치에 의거 사면안정성 검토를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본 사면안정성 검토결과에 의거 보강 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수해복구 사업으로 도로사면 붕괴구간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지질조사 및 사면안정성 검토결과 휴석동 일대의 전체적 지반 불안정 및 붕괴의 위험이 있을 시에는 휴석동 일대 전체적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면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여성이 행복한 도시(인간과 환경 중심의 도시로) 계획은?



양 수 자 의원 | (비례대표, 한나라)

[질 · 의 · 요 · 지]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단양도“ 인간과 환경 중심의 도시” 로 새로이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무질서한 시가지하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녹지공간의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저하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위험으로부터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의 변화와 실천 수단들이 지금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은?

- 김동성 군수 답변 -

- 우리 군에서는 단양군의 바람직한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양군 행정구역 전역(789.108km²)에 대하여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을 만들기 위하여 2005. 6. 29. 착수한 단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007. 12 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군 기본계획은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우리군의 장기적,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토지적성평가, 기초 조사, 도시경관계획, 도시교통 계획, 재해성, 환경성 검토 등 「선 계획 후개발」 도시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인간과 환경에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여성이 살기좋은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단양이 정말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회 차	일 수	처 리 안 건	비 고
제154회 임시회	2.17~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제155회 임시회	4.24~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제1회 추경) 	
제156회 임시회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157회 임시회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58회 임시회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부의장 선거 • 제5대 단양군의회 개원식 	
제159회 임시회	7.2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제2회 추경 및 예비비 심사) 	
제160회 임시회	8.24~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회 추경) •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제161회 임시회	9.11~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제162회 정례회	10.16~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산승인) •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제163회 임시회	11.6~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제164회 정례회	11.24~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질문 및 2007년 군정 업무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7년 당초예산 및 제4회 추경) •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월 별	회 기 별	주 요 안 건	비 고
2월	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에 따른 군정업무 보고 • 조례안 심사 등 기타부의안건 	
4월	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승인 등 부의안건 	
5월	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기타 부의안건 	
6월	제1차 정례회 (6.5 개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06년 결산검사 승인 • 기타 부의안건 	
7월	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보고 	
9월	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승인 등 부의안건 	
10월	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실시 • 기타 부의안건 	
11월	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보고 	
11월	제2차 정례회 (11.30 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도 당초예산안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7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 기타 부의안건 	

◎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 읍면별 의정보고회 및 주민간담회 개최(수시)
- 군민 의정 참여기회 확대 및 의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모의의회 개최 등
- 대규모, 주민 이해관련사업 공청회 의무화 추진

◎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며 발전하는 의회**

-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입법활동 강화
- 의정발전연구회 운영으로 선진의정 구현
- 내실있는 의정연수 실시
- 기관 및 관내 단체장등과의 간담회 개최(수시)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로 활기찬 지역 건설**

- 성장과 분배에 기초한 지역균형 개발
- 현장중심의 확인 의정 수행
- 소외되고 그늘진 군민 우선 배려

◎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

- 충실한 회기 운영으로 의정의 내실화 도모
- 민생 행정사무감사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
- 주민을 위한 요일별 민원상담제 실시
- 의정 모니터제 운영으로 주민에 다가가는 의회

